



"지붕의 호박도 못 따면서 하늘의 천도 따겠단다"

뜻: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쉬운 일도 못하면서, 아주아주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칠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허세 · 주제 · 능력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지	붕	의	↓	호	박	도	↓	못	↓	따	면	서
하	늘	의	↓	천	도	↓	따	겠	단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지	붕	의	↓	호	박	도	↓	못	↓	따	면	서
하	늘	의	↓	천	도	↓	따	겠	단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지붕의] [호박도] [못] [따면서] [하늘의] [천도] [따겠단다]

웹에서 보기

